

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보도자료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

MUSEUM FOR YOU

보도 일시	2024. 10. 28.(월) 17:00	배포 번호	국립진주박물관 2024-30
담당 부서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책임자	실장 진정환 (055-740-0661)
		담당자	학예연구사 이효종 (055-740-0664)

국립진주박물관, 진주고등학교 소장 문화유산을 기증받다 - <삼국시대 기대> 등 고고품 및 민속품 347건 505점 기증 -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은 10월 24일(목) 진주고등학교(교장 정의창) 소장 문화유산 347건 505점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국립진주박물관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지역 사회가 화답한 것이다.

진주고등학교 소장 문화유산은 1973년 개관한 진주고등학교 토속품 전시관(비봉향토관)에 전시했던 것이다. 당시 진주고등학교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고고품, 민속품 등 400여 점을 기증받거나 수집했다. 여기에 졸업생과 진주 시민이 진열장을 마련해주어 학교의 생활관 내에 향토관을 열었다. 이 향토관은 경남지역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만들어져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되어 왔다.

진주고등학교가 기증한 문화유산은 진주고등학교가 수집한 1973년 이래 50여 년간 보관하던 것으로, 수집경로가 비교적 뚜렷하여 자료적 가치가 높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진주와 그 주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

히, 최소 50여년 이상된 민속품은 지역의 민속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국립진주박물관은 이 문화유산을 이전 개관하는 국립진주박물관 경남역사문화실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주고등학교 정의창 교장은 “이번에 기증된 문화유산이 진주고등학교와 진주고등학교 동문들의 뜻에 맞게 전시와 학술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에 국립진주박물관 장용준 관장은 “이번 기증이 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진주박물관은 기증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진주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증식 사진 및 기증 관련 주요 문화유산 사진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이효종 학예연구사(055-740-06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기증식 사진



그림 2. 기대(그릇받침)(삼국시대)



그림 3. 토기(삼국시대)



그림 4. 사기 접시(조선시대)



그림 5. 병(사기)(조선시대)



그림 6. 병(사기)(조선시대)



그림 7. 갓(조선시대/근현대)



그림 8. 장신구(비녀, 빗치개, 뒤꽂이)(조선시대)



그림 9. 자물쇠(조선시대)



그림 10. 상평통보(조선시대)



그림 11. 논어(조선시대)



그림 12. 성학십도(조선시대)



그림 13. 승경도(조선시대)